

보물 제1040호 화엄사 석경(사진 왼쪽)과 보물 제390호 광덕사 소장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한국 사경역사를 보여준 문화재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7월 30일까지 전시된다.

보물 '화엄사 석경' 한자리서 만난다

불교중앙博 '전통사경의 본지풍광' 展

화엄사 사경원 개원 기념해
7월 30일까지 테마전 진행
화엄석경 · 고려사경 등 전시
사경연구회 현대사경 작품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화엄사 석경 등 한국 사경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0년 테마전 '전통사경의 본지풍광' 전을 개최한다.

화엄사와 한국사경연구회가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화엄사가 소장한 화엄사 석경(보물 제1040호) 40여 편이 서울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전통사경의 정수를 이루었던 고려시대 사경인 천안 광덕사 소장 '상지은니 묘법연화경(보물 제390호)', 부안 내소사 소장 '백지묵서 묘법연화경(보물 제278호)' 도 함께 전시된다.

'사경수행 원년의 해'를 선포한 화엄사가 전통사경원 개원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전시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조성한 전통사경과 현대사경 40점도 함께 선보인다. 조선시대 이후 명맥이 끊긴 한국 전통사경의 복원을 주도한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명예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참여했다.

전통사경의 본지풍광은 전통사경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르는 말로, 선조들이 남긴 빛나는 사경 유물들을 볼 때 반드시 법으로 삼아야 할 서체가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경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사 석경에서 그 시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화엄사 화엄석경은 사경 역사에서 서체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성보문화재로 모든 사경 수행자가 근본으로 삼아야 할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사 석경은 670년(문무왕 10)에 의상대사가 화엄사를 중창할 때 왕명으로 3층의 장륙전을 조성하고 주위에 석각(石刻)의 화엄경을 둘렀다고 〈봉성지(鳳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797년 한역된 정원본 40권 〈화엄경〉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통일신라 말로 추정하는 등 화엄사 석경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전하지만 모두 석경의 조성 연대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진응은 이 석경이 헌강왕대에서 경순왕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륙전을 두르고 있던 이 석경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일제강점기까지 각황전 둘레에 돌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 말에 각황전 해체 보수 과정에서 진응의 노력으로 그 파편들이 정리됐다.

현존하는 석경편은 1만4000여 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소로 나누어져 163상자로 분류, 정리되었는데, 석경편의 크기는 몇 자에서부터 50자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다. 파편으로 남았지만 신라 후기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화엄사 석경은 1972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됐다가 1990년 보물 제1040호로 승격됐다.

중국에서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에 이르러 불경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석경의 조성이 유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경이 크게 유행하지 못했다. 다만 화엄사 석경 외에 경상북도 경주 내남면 배리에서 수습된 법화석경과 경주 남산 칠불암에서 출토된 금강석경 파편 등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번 전시는 법사리를 대표하는 화엄사의 화엄석경과 고려사경 그리고 이를 재현한 현대의 전통사경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시로 우리 불교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명 · 만당 · 진명 스님, 무형문화재위원 위촉

문화재청 위원 27명 위촉
위원장 신탁근 고문 선출



원명 스님



만당 스님



진명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 시흥 법련사 주지 진명 스님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위원 27명과 전문위원 3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임기는 2022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신탁근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영운 국악방송 사장과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선임됐다.

불교계에서는 원명 · 만당 · 진명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통예술 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원명 스님은 조계종 의례위원장과 (사)생전예수재보존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화사 수륙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었으며, 현재도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지정에 힘쓰고 있다.

전통지식 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만당 스님은 불갑사성보박물관장과 조계종 前 기획문화특보를 역임했다. 진명 스님은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 분과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 성보위원인 김정희 원광대 교수와 안귀숙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도 무형문화재 전통지식 분과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보유단체 지정 ·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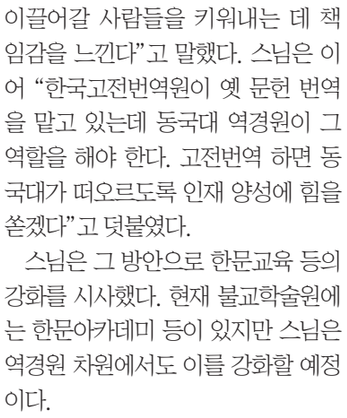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의별 주요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위원들을 탄력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재청 비상근 자문기구다. 신성민 기자

Interview

"번안번역 역경사 양성 종단 차원 관심 필요"

신임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글을 한문으로 만들어 내는 역량 또한 역경에서 중요합니다. 번안번역의 역경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이 역경원장 취임을 맞아 한국불교 역경인재 불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국역경원이 역경역량 확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혜거 스님은 5월 1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혜거 스님은 4월 9일 역경원장에 임명됐다. 역경기금으로 동국대 기부부터 역경원장 취임 이후 스님은 역경원 방향에 대한 교계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취임 한달만에 혜거 스님이 기자간담회까지 열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역경불사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현재 동국역경원은 불교학술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인 ABC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대장경 서비스를 진행하며,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문화 저본으로서의 불교고전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스님은 무엇보다 역경인재 양성에 종단차원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결국 불교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불교의 고전에서 그 방향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며 "스님들이 앞선 현대화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근본에 그 힘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미래 역경인재들의 중요한 역량으로 한글을 한문으로 번안번역하는 것을 꼽았다. 스님은 "예를 들어 비문만 하더라도, 한문 비문을 쓸 수 있는 젊은 스님들은 극소수다. 결국 고전을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작업 이전에 역경사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고령의 나이에도 역경원장으로 나선 것은 은사인 탄허 스님과 역경원과 엮인 인연 때문이다.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거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은사인 탄허 스님을 시봉하며 사실상 한국불교 역경의 변화를 함께 했다.

"영은사서 행자시절 스님은 행자들이 강의를 듣도록 했어요. 당시 영은사 주지 스님이 행자들 일을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은사 스님과 월정사서 사집 사교 공부를 마치고 스님이 용주사 역경장 소임을 맡으며 거기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게 됐지요."

당시 역경장에는 많은 스님들이 역경불사에 참여했다.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당시 탄허 스님 문하서 배운 역경인재 중 대표인사다.

혜거 스님은 "역경을 오래 하다보니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맡게 됐다"며 "그만큼 앞으로 역경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고전번역원이 옛 문헌 번역을 맡고 있는데 동국대 역경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고전번역 하면 동국대가 떠오르도록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그 방안으로 한문교육 등의 강화를 시사했다. 현재 불교학술원에는 한문아카데미 등이 있지만 스님은 역경원 차원에서도 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님은 "한문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문의 명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좋다. 고전 전체를 외우고, 한시를 300수 가량 외우면 이를 활용한 명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불교는 〈대승기신론〉을 외우면 불교 한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역경역량 강화와 함께 최근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사업에 대한 동국역경원의 방향도 향후 진단할 예정이다.

"고전에 관한 최고 기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고전 번역과 현대화, 대중화 작업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